

## 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실시,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 확대
-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충원으로 응대율 90% 확보, SNS 자살예방상담 서비스 도입
- 자살시도자·유족에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1393’이 어떤 전화번호인지 아시나요?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입니다. 2021년 한 해 걸려온 전화는 약 19만 건.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상담사의 노력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자살률 :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4.14.)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인데요. 특히 이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담겼습니다.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이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 알기 쉬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 배포일 : 2023. 4. 14.(금)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엠바고 후 게재

🌐 <https://blog.naver.com/mohw2016>

그럼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까요?

먼저,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예정인데요.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마을 중 사업이 중점 추진되는 마을은 '10·20 마음건강 마을(가칭)',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 친근한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더해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양성**에 적극 나섭니다. 실제로 8년간 꾸준히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한 경기 가평군은 2013년 44.9명이었던 자살률이 2021년 19.4명으로 크게 낮아진 바 있습니다.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은 사망 전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경고신호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은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도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을 단위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러한 경고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준다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현재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는데요. **검사 질환 또한 우울증 1개 항목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합니다.

검진 결과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국 26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부터 **청년층(만 20~34세)에 우선 도입**한 뒤,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알기 쉬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 배포일 : 2023. 4. 14.(금)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엠바고 후 게재

🌐 <https://blog.naver.com/mohw2016>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합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2022년 기준 약 60%였던 **응대율을 90%까지** 높이고 청년층에게 친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자살유발 정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삭제요청 외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갖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삭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긴급구조·수사(경찰청)**까지 즉각적으로 대응,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차단합니다.

자살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사후관리도 강화하는데요. **자살 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건강하게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자살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학자금 대출, 일시주거 등 법률·행정 처리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9개 시·도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세종, 충남, 충북, 제주

이외에도 **경제위기군과 재난경험자** 등 정신건강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맞춘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자살위험을 밀착 관리**하고, **심리부검과**

## 알기 쉬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 배포일 : 2023. 4. 14.(금)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엠바고 후 게재

🌐 <https://blog.naver.com/mohw2016>

자살사망자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나갑니다.

정부는 지역과 상황,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2023년 4월 14일 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